

□ 사례명 :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90-7번지 일원 ○ 추진기간 : 2021. 05. ~ 현재 ○ 사 업 비 : 50억(민자) ○ 사업내용 : 민간자본으로 오픈세트장 건립 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후 촬영장으로 활용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2.~'21. 7.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 '21. 05. 17. : 관련부서 인허가 절차 협의 ○ '21. 05. 26. : 제작사 관계자 업무 협의 ○ '21. 08. 25. : 업무협약 체결(문경시-제작사) ○ '22. 01. 19. : tvN드라마 <환혼> 촬영 시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 적치 폐기물 처리 후에도 활용 계획이 마땅치 않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21년간 총 3만4천평 규모의 문경새재,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여, 제작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제안 - 오픈세트장 유치를 위한 TF팀(8개부서)를 구성하여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계획이 마땅치 않던 폐기물 처리 시유지에 민간자본 50억원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유치 ○ 공유재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 상당의 민간자본 유치 ○ 세트제작, 세트장 유지보수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50명 이상의 제작 및 촬영팀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촬영장 제공 및 지역 명소 노출로 지역 홍보 효과 극대화

방치된 폐기물처리장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1. 과제 선정 내용

- 폐업한 폐기물처리장이 활용계획이 마땅치 않아 방치되어 있었음
 - 폐비닐을 하루400톤 파쇄·성형하여 연료로 재가공 하던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가 2016년부터 시작 된 저유가로 인해 경영 악화로 폐기물을 적치하던 중 2018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취소 후 폐기물 무단적치 한 것을 2019~2021년에 걸쳐 위탁처리 용역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중 드라마 촬영장 부지를 물색하던 업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2. 문제원인 분석

- 사유지의 효율적 활용 미비 및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반감
 - 약 13,000m²에 달하는 사유지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장의 방치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감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유지 활용 방안 모색 및 민간 투자처에 적극 추천
 -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던 사유지를 활용할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촬영장 부지를 물색하던 제작사에 해당 사유지 활용을 적극 추천하였다.

4. 장애극복

- 제작사의 오픈세트장 부지 전국적 물색
 - 2021년 6월 착공 가능한 13,829m²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제작사에 가온오픈세트장과 인접한 해당 부지를 추천하고, 21년간 총 3만4천평 규모의 문경새재, 가온오픈세트장을 운영한 문경시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맞춤형 현장 지원 시스템 제공 등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후보지 현장답사 끝에 최적의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다.
-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투자여부 불투명
 - 촬영장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던 초기에 제작사측이 촉박한 제작일정과 맞지 않게 촬영장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경시에서 TF팀(8개 부서)를 구성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실제 행정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간자본유치에 성공하였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세트제작, 세트장 유지보수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세트제작 과정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 근로자들과 지역의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제작 및 촬영 스텝의 체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야외세트장 준공 이후 50회 이상의 촬영으로 다수의 인원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작사 유치 및 인기작 방영으로 지자체 홍보 효과 극대화

- 다수의 인기작을 제작한 노하우가 있는 제작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문경시가 보유하고 있는 촬영장 및 명소 등이 다수 노출시켜 문경시의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오픈세트장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수입 발생

- 무상사용 허가 대상 제작사 이외의 제작사가 촬영장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인기 방영작을 활용한 전시관,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람인구 유입을 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였다.

○ 문경 드라마 세트장에서 제작한 드라마 <환혼>과 연계한 지역 홍보 활동

- 인기리에 방영 된 <환혼>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문경시의 대표 관광 상품 및 특산물 판매와 연결시킨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 관광 상품 및 특산물을 젊은 층에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 사진 자료

활용 전



활용 후



□ 언론보도 자료

스타뉴스 (2022. 06. 28)

22. 6. 8. 오후 6:32

스타뉴스

스타뉴스 뉴스 검색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환혼' 대호국의 비밀..경상북도 문경시 폐기물 부지 [공식]

스타뉴스 김수진 / 입력 : 2022.06.28 14:00



가상의 나라 '대호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활극 '환혼' (연출 박준화/극본 홍정은 홍미란/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하이퀄리티) 오픈 세트장이 폐기물 부지였다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밝혔다.

스튜디오드래곤(대표이사 김영규, 김재현)은 지난해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 하내리에 방치되었던 폐기물 부지를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할바꿈 시켰다. 그 장소는 수 년간 방치한 폐기물이 5만톤이나 쌓여있었던 곳으로, 환혼 오픈 세트장이 간헐되며 그야말로 '상천박'태를 이뤘다.

지난 주 tvN과 넷플릭스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환혼'은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호국을 배경으로,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바뀐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다. 가상의 세계가 배경이라 기존의 사극 세트장이 아닌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넓은 부지를 탐색하던 중 문경시와 협약을 맺고 세트장 착공에 들어가 11월부터 크랭크인 했다.

'환혼'의 이종간 미술감독은 "큰 호수를 지닌 나라 '대호국'은 신라 세라벌을 모티브로 삼았다. 현재 경주의 모습과 신라 세라벌 국원의 모습에서 운해가 흐르는 대호국의 기초적 형태를 잡았다"고 전 하며 "그야말로 가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이나 고려 등 한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글을 적극 자유하는 등 다양한 미술적 시도를 여쭙지 않았다"고 환혼 세트장 컨셉트에 대한 후일담을 남긴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폐기물 부지에 '환혼'의 '대호국'이 들어선 것.

폐기물 부지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환골탈태, 잠재적인 관광 자원으로 떠오른 이번 협업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하는 ESG 경영 사례에도 부합한다.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으로, 스튜디오드래곤은 향후 문경시와 상호 협력하여 '환혼'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객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30분에 tvN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kjaronny@mtstarnews.com)

«저작권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s://bit.ly/36b6lmp>Ph?m=20220628134747%3E&type=3

□ 언론보도 자료

엣스타일 (2022. 06. 28)

star 1

‘환혼’ 촬영장이 5만톤 쓰레기장이었다고? 폐기물 부지→ 오픈 세트장 환골탈태

기사입력 2022.06.28. 오전 10:26



[엣스타일 황연도 기자] 문경시의 폐기물 부지가 드라마 ‘환혼’ 오픈 세트장으로 탈바꿈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 하내리에 방치됐던 폐기물 부지를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변신 시켰다. 그 장소는 수 년간 방치된 폐기물이 5만톤이나 쌓여있었던 곳으로, 환혼 오픈 세트장이 건립되며 ‘환골탈태’했다.

□ 언론보도 자료

국제뉴스 (2022. 07. 04)

GUKJENews
HOME · 전국 · 경제

문경시, 인기드라마 <환혼> IP 활용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 개시!

A 조영래 기자 | 20220704 11:30

- 3회에 걸쳐 문경 대표 관광상품·특산품 등 판매



인기드라마 환혼 부활을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 개시, 숲을 향사 일부마당 오른세트장(사진=문경시)

(문경=국제뉴스) 조영래 기자 = 경북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6월 18일 첫 방송한 인기드라마 <환혼> IP를 활용하여, 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판매)를 7월 5일(화) 오후 6시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마성 오른세트장에서 촬영한 tN 드라마 <환혼> 의 회재성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문경의 대표 관광상품(가은 예고말라, 고대열차 등)·특산품(갯사발, 오미자)을 드라마와 관련된 스토리로 꾸며 라이브커머스로 녹여낸다.

방송은 7월 5일, 12일, 19일 3회에 걸쳐 오후 6시 네이버쇼핑라이브 플랫폼(재널 season)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본 방송 하루 전 인기 코미디언 이상준, 신기루와 함께 마성오른세트장 등을 배경으로 제작된 숲속 콘텐츠 영상도 같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마성 오른세트장을 홍보하고 문경의 대표 관광자특산품을 소개하여 향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트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트장 내 물리마켓, 카페거리 조성 등 체험형 문화 콘텐츠 공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tN 드라마 <환혼>은 현재까지 총 6회 방영하였으며, 평균 시청률 약 5.8%로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은 "우리 문경에서 촬영한 tN 드라마 <환혼> 세트장을 문경의 대표 관광상품·특산품과 연결하여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문경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래 기자 | yj173@naver.com